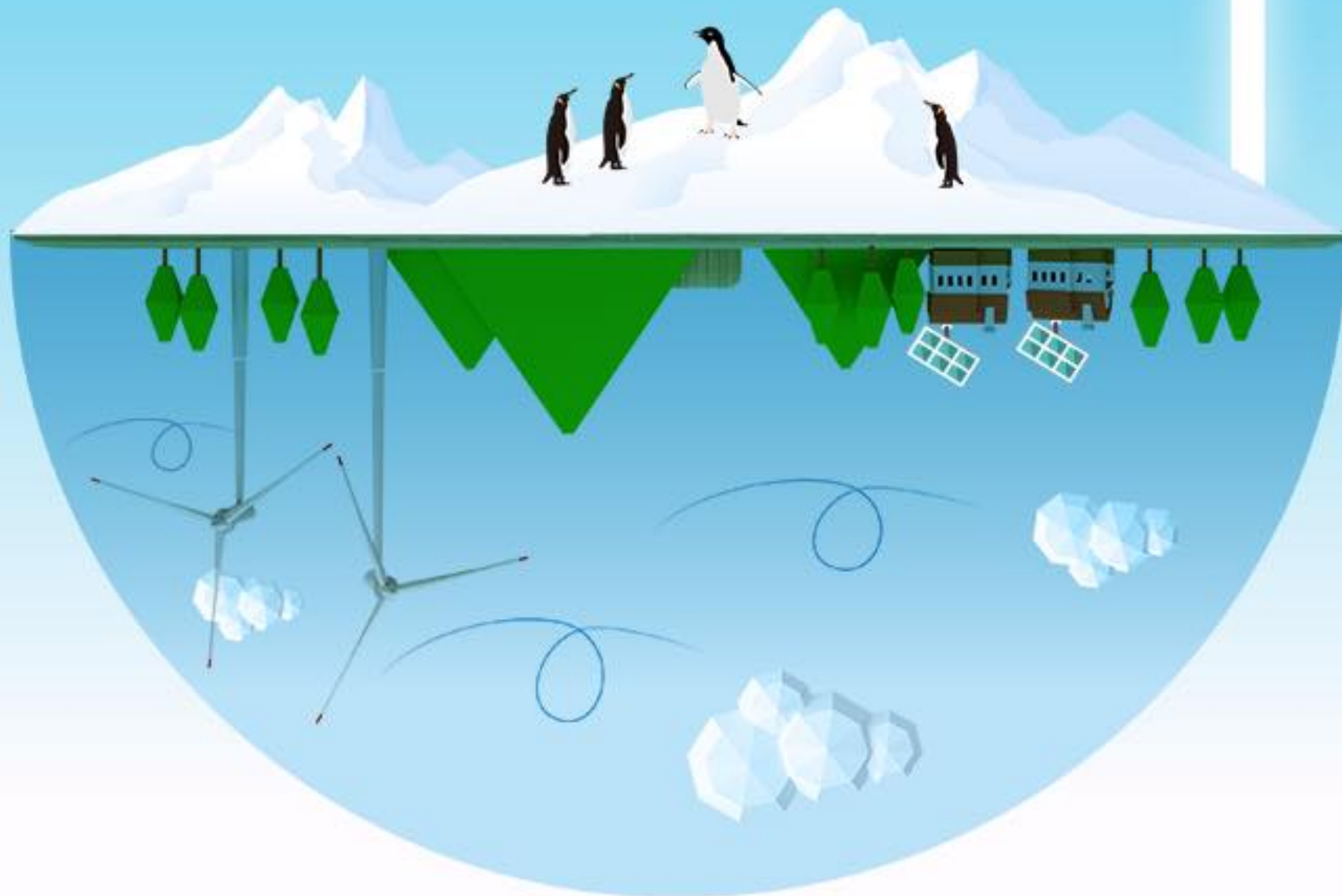


한전 글로벌 신재생사업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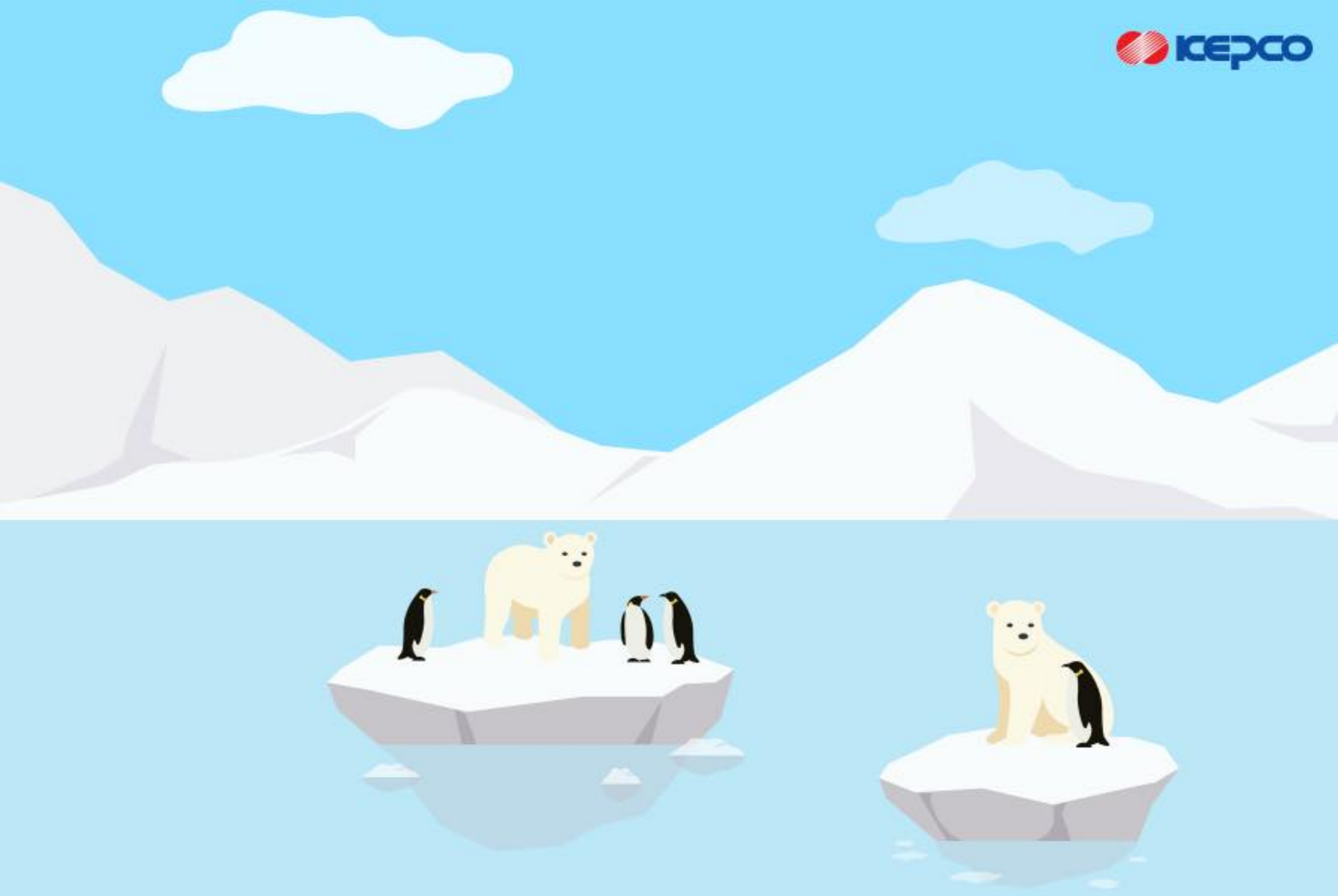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로 세계를 밝힌다





한국전력은 1995년 필리핀에서
 말라야 중유발전소 성능복구 사업을 시작한 이래
 전세계 25개국*에서 발전·송배전·신사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2020년 6월 기준



기후변화대응과 그린뉴딜이라는

세계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해외사업에서 신재생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몽고 · 요녕 · 감숙
태양광/풍력
1,024MW

2006년 중국에서 내몽고 새한패 발전단지를 준공한 이후,
내몽고, 요녕성, 감숙성에서 1,024MW에 이르는 풍력발전과
7MW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풍력과 태양광발전의 상호보완을 통한 효율적 신재생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르단



푸제이즈 풍력 89MW

2019년에는 **요르단**에서
89MW 푸제이즈 풍력발전소를 준공했는데요,

요르단 사업은 한전이 중동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풍력사업이자
 지분 100%를 투자해 사업 개발부터 발전소 건설, 운영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본

치토세 태양광 28MW

필리핀

칼라라간 태양광 50MW

한전 최초의 해외 태양광개발사업인
28MW 일본 치토세 태양광발전소도
2017년에 준공되어 상업운전 중이며,
필리핀에서도 **5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지분을 인수하면서
신재생발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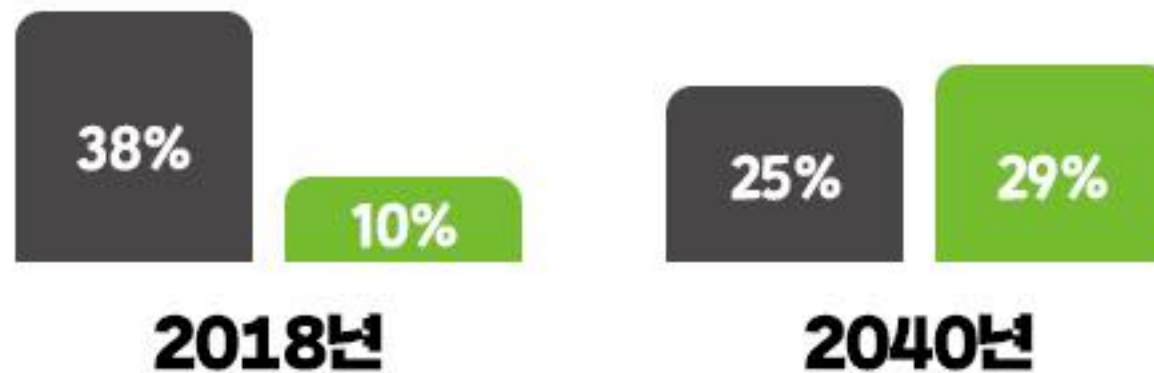
아시아,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7년 **60MW 미국 광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하고
 2020년 현재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멕시코**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3개 지역에 **29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데요,
 신재생발전의 비중은 2018년 10%에서
2040년 29%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 전원별 발전량 비중>

■ 석탄
■ 신재생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9 (2019~2040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저탄소, 친환경 전력사업으로
글로벌 에너지시장을 이끄는 한전의 활약을 지켜봐 주세요~